

환경분과위원회의 프로젝트

동해·황해연안의 해변 표착물조사 (도야마현)

1 목적

본조사는 ①지속적으로 인공물에 의한 해변의 오염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대책,폐기물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 ②연안지역 주민의 조사참가를 통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마음,바다의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기른다」라는 공통의식을 양성하고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최근 국제적인 해양환경문제로서 주목되고 있고, 바다를 둘러싼 지역연안에 표착하고 있는 표착물량을 통일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는 본 프로젝트의 조사결과는 일본정부나 국제기관에서 표착물 대책의 기초자료로서 이용·활용되고 있다.

2 실시내용

(1) 실시시기

2009년 4월~2010년 3월

(2) 실시장소

동해·황해의 해안

(3) 실시방법

a 조사주체

지자체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민간단체의 협력을 얻어 실시

b 조사횟수

각 지자체,해안에 따라 연간 1~4회의 횟수로 조사를 실시

c 조사방법

- 해수욕장 등에 파도치는 방향에서 육지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3구획 정도의 조사구획 (1구획 10m×10m) 을 설정한다.
- 설정된 조사구획의 표착물을 모두 회수해 다음의 8종류로 분류하고 개수 및 중량을 측정한다.

① 플라스틱류	② 고무류	③ 발포스티렌류	
④ 종이류	⑤ 형질류	⑥ 유리·도자기류	⑦ 금속류
⑧ 기타 인공물			

d 조사결과

지자체로부터 본회에 제출된 조사결과는 (재)NPEC 에서 정리해서 보고서 등을 작성한다.

(4) 참가지자체

동북아시아지역 지자체연합 회원과 그외의 지자체를 포함한 22 지자체에서 실시예정

일 본 : 홋카이도,아오모리현,아마가타현,니가타현,도야마현,이시카와현,후쿠이현

교토부,효고현,돗토리현,시마네현,아마구치현,후쿠오카현,사가현,나가사키현

러시아 : 연해주, 하바로프스크지방, 사할린주

한 국 : 강원도, 경상북도

중 국 : 하북성, 강소성

3 2008 년도 사업결과

(1) 참가지자체

동북아시아지역 지자체연합 회원과 그외 지자체를 포함한 22 지자체에서 실시

(2) 실시결과

현재 결과정리를 하는 중이므로 근일중에 보고서를 공표할 예정



조사실시 상황